

천주교 콜럼버스 교구 한인성당



본당주소: Holy Family Church 584 W. Broad St. Columbus, OH 43215
 홈페이지: <http://www.kcolumbus.org>
 주임신부: 김충귀 베드로 신부 (badackk@yahoo.co.kr, 614-961-0980)
 총회장: 이봉모 바오로 (614-766-1990) 부회장: 최영자 레지나 (614-855-2167)

본당 소식

◆ 미주지역 대구 대교구 사제 연수 및 피정

- 일시: 7월 7일(월) - 7월 11일(금)
- 장소: charlotte, North Carolina

◆ 콜럼버스 교구 BAA 담당자 초청 설명회

- 일시: 7월 20일 주일 미사 중
- 강사: Lena Richards

◆ 오늘 미사 후 꾸리아 월례 모임이 있습니다.

◆ 친교 준비 봉사자

- 7월 6일: 사윤진
- 7월 13일: 하주영

◆ 7월 친교 후 정리 봉사: 김제준 구역

◆ 매월 둘째 주일 미사 후 유아세례가 있습니다.

신청하실 부모님께서는 최규선 루치아노 형제님(614-302-3708)에게 문의하십시오.

◆ 매월 셋째 주일 미사 후 병자 봉성체가 있습니다.

◆ 2008년 BAA (Bishop's Annual Appeal)

모금에 많은 교우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BAA 모금은 콜럼버스 교구의 모든 본당에서 이루어지며, 모금액은 주교님께서 정하시는 가톨릭 교육 사업, 성소 개발, 사정이 어려운 단체나 본당 지원 사업 등에 사용됩니다.
- 올해 우리 공동체의 목표금액은 \$6,427이며 지난 주까지 모금액은 \$3,120입니다.
- 참여하실 분은 재무위원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미사 후 성당 정문을 이용하시는 교우들께서는, 꼭 문이 닫혔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친교시간 이후 각자 앉았던 자리를 깨끗이 정리해 주시고,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을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주교 콜럼버스 교구 한인성당

The Korean Catholic Church of the Diocese of Columbus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대축일 경축이동 July 6, 2008



<성 김대건 안드레아>

문학진(1924-), 유화, 명동성당, 서울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주 일 헌 금	\$349.00
교 무 금	\$950.00
감 사 헌 금	\$100.00

- 교 무 금: 김영천 서경환 곽광주 최규선 김승재
- 감사헌금: 윤경수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오늘의 전례

제 1 독서 역대기 하권 24,18-22

“너희는 성소와 제단 사이에서 즈카르야를 살해하였다.”

화답송



제 2 독서 로마서 5,1-5

“우리는 환난도 자량으로 여깁니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 알렐루야

복음 마태오 10,17-22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공동체를 위한 목주기도 50만단 바치기 운동

- 지향1) 공동체 자체 건물 마련을 위한 지향
- 지향2) 공동체안에서 고통중인 신자를 위한 지향
- 지향3) 공동체안에서 성소자 계발을 위한 지향

구역	지난 주일	합계
김제준	300단 2명	1,745단 14명
이호영	단 명	8,538단 74명
정하상	단 명	3,485단 77명
황석두	100단 1명	6,595단 69명
김효임	단 명	1,171단 29명
학생 구역	단 명	10단 2명
미사중	단 명	12,109단 10,315명
	400단 3명	2/22/04 - 6/29/08 (228주)

♣ 총누계: 197,938단 12,677명
목주기도 목표단수는 매주 5천단입니다.



봉사자 안내

	7월 6일	7월 13일
해설자	신현태	곽광주
독서/봉헌	김효임 구역	김도형 박선경 정하상 구역
보편지향 기도	평화의 모후	상지의 옥좌

오늘의 성가

♫ 입당: 444 ♫ 봉헌: 210
♫ 성체: 499 160 ♫ 파견: 436

생명의 말씀

피를 나누다

박문식 베네딕토 신부, 콘벤뚜알 프란치스코회 관구장

초등학교 3학년과 6학년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는데 큰아들이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했다. 피를 너무 흘려 살기가 어렵다는 의사의 말에 아버지는 자신의 피를 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아들의 피가 'RH-'라는 흔하지 않은 피여서 아버지나 어머니와는 맞지 않았으며 병원에서도 쉽게 구할 수 없었다. 마침 동생의 피가 형과 같아서 어린 동생의 몸에서 피를 뽑아야 할 상황이 되었다. 아버지는 어렵게 말을 꺼냈다. “준식아, 네 형이 죽어간다. 피를 너무 많이 흘렀단다. 내 피를 주고 싶어도 줄 수 없어 안타깝구나. 네가 형에게 피를 좀 줄 수 있겠니? 그러면 형이 살아날 수 있단다.” 한참을 생각하고 아버지와 형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던 준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침대에 누워 있는 아이에게서 간호사는 피를 뽑았다. “이제 됐다. 일어나거라!” 안쓰럽게 바라보던 아버지의 말에도 가만히 누워만 있었다. “일어나라니까!” “아빠, 나 언제 죽어?”, “뭐야? 네 피를 형에게 주면 너는 죽고 형은 살아나는 줄 알았어?” “응.” 그 대답에 기가 막힌 아버지는 아들을 끌어안고 한참이나 울었다.

“친구들(벗)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사랑은 없다”(요한 15,13).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셨고 순교자들은 주님을 위해 피를 흘렸다. 사랑과 믿음을 증거하기 위해 피를 흘려 죽는 것을 순교(殉教)라고 한다. 옛 교우들은 치명(致命)이라고도 했는데 하느님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는 뜻이다.

목숨을 바친다는 것은 모두를 바치는 것이다. 몸과 맘, 재산과 명예, 자신의 재능과 장래의 멋진 계획까지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아끼는 것들, 그리고 자신의 삶과 활동을 기쁘게 바치는 것이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는 약속이며 각오다. 그래서 순교는 사랑의 극치이며 가장 큰 삶의 표현이다. 순교는 신앙행위의 가장 높은 단계이고, 신앙을 증거하는 일 가운데 이만큼 크고 완벽한 것은 없다. 그래서 순교자들을 믿음의 증인들이라고 말한다.

순교는 가장 큰 은혜이다. 하느님의 은총이 모여 무서운 힘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순교다. 마치 햇빛이 한 곳으로 모이면 뜨거운 열이 생기는 것처럼, 은총의 초점으로 이루어지는 순교는 언제나 장렬하고 우리에게 열렬한 신심을 일깨워 준다.

“이런 군란도 역시 천주의 허락하신 바니 너희 감수 인내하여 위주하고 주께 슬피 빌어 빨리 평안함을 주시기를 기다리라. 나는 하느님을 위해 죽으니 내 앞에는 영원한 생명이 시작할 것이다”(성 김대건 안드레아의 ‘옥중서한’에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성인을 기리며 이런 말씀을 하셨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의 순교 신앙을 본받아 이 땅에 정의와 평화가 넘쳐나게 기도하여, 이웃에게 봉사하는 것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은 성인의 말씀처럼 피를 나누지는 못하지만, 신앙의 결단에 따라 맘을 흘리는 인내로 이웃과 생명을 나누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나누는 사람에게 언약하셨다.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마태 10,22).